

# 시·소설·희곡 넘나드는 문인들

문단의 새 경향, '복수장르' 활동 두드러져

근래 시를 쓰는 소설가, 소설을 쓰는 시인이 늘고 있어 문단과 출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기가 맡은 한 분야만을 고독하게 파고드는 장인정신에 가치를 두어온 우리 문단의 흐름을 염두에 둘 때 최근 문인들의 활발한 복수장르 활동은 매우 이색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한국소설에 대한 시인들의 '깡판농기'

한 작가가 다양한 장르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독자와 평자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세계문학사를 놓고 볼 때는 일반화된 현상. 우리나라에서도 신문학 초창기엔 이광수가 시를 쓰고 한용운이 장편소설을 발표하는 등 장르에 대한 금기는 거의 없었던 편이었다. 그러나 문단의 층이 두꺼워지고 질서가 잡혀감에 따라 이런 현상은 차츰 사라져갔다. 물론 김동리, 황순원같은 작가들이 가끔 시를 발표하기도 했고 서정주, 고은, 김춘수도 소설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餘技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복수장르 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들은 다음 두가지 점에서 전시대 작가와 다른 특색을 보인다. 첫째, 이전에 복수장르 활동을 한 문인들은 이제하, 윤희명, 송기원의 경우처럼 대개 두개 이상의 장르에 정식 데뷔절차를 밟는데 비해, 근래에는 이런 관례를 무시하고 바로 작품집 발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둘째, 상당수가 80년대 문학의 한 징후인 장르해체 및 형태파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작품 전체가 독특한 실험성과 전위성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흐름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열음사에서 기획한 '시인들이 쓴 소설' 시리즈. 시인 이윤택이 "소설가에 대한, 또는 한국소설에 대한 시인들의 깡판농기"라고 그 기획취지를 설명한데서도 눈치챌 수 있듯이 모종의 불순환(?) 의도와 야심이 잠재되어 있다. '80년대는 시의 시대'라는 저널리즘적 명칭이 말해주듯이, 80년대 소설은 현실 대응면에 있어서나 상업적 측면에 있어서 어느정도 정체성에 빠져 있다는 내외의 지적을 받아왔다. 시인들의 소설쓰기는 바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파상공격으로서 작가나 독자 모두에게 충격을 던져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점은 이번 기획에 참여하는 시인들이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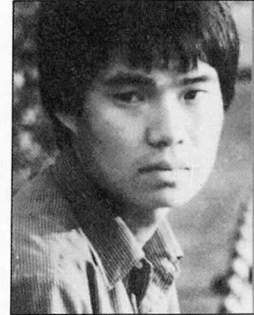
박경리씨



이문구씨



정동주씨



장정일씨

석·김수경·김영승·박남철 등 주로 도시적 감수성으로 무장한 형태파괴적 작품을 써온 시인들이라는 점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과연 이 시리즈의 첫 결실인 장정일의 전작장편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이러한 기대와 우려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작품. 동성애라는 외설스러운 소재를 통해 권력과 성, 자본, 종교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 소설적 성공은 차지하고라도 메타픽션이라는 독특한 서술방법을 통해 소설의 존재양식을 해체하는 저자의 노력이 이채롭다.

열음사에서는 10월 중순 이하석의 「여름강」, 김수경의 「즈윙중」, 이윤택의 「시민K」 등을 펴내는 등 연말까지 6명의 시인들의 전작장편을 완간할 계획으로 있다.

이밖에 김정환의 「세상 속으로」(동광), 정동주의 「백정」(열린책들), 마중하의 「하늘의 발자욱」(창우사)도 시인이 쓴 소설로 관심을 모으는 작품들.

'유격적 감수성'을 부르짖으며 80년대 초반 민중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김정환시인의 「세상 속으로」는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칠게 통과해온 한 젊은이의 삶을 그리고 있다. 작가의 목소리가 그대로 드러나 생경한 느낌도 없지 않지만, 메타픽션의 형태파괴와는 또다른 민중문학적 형태파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농부시인 정동주의 「백정」은 진주민란을 통해 역사의 전면으로 부각되어 나온 백정들의 처절한 삶을 민중사적 시각으로 조명한 작품이며, 마중하시인의 「하늘의 발자욱」은 자서전적인 장편 수기소설. 마시인은 자신의 작품을 시·소설·비평·수기의 대통합을 단행한 '敘事錄'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희곡작가인 윤정선 교수(단국대)가 최근 시집 「우리들의 숲」(문학세계사)과 소설집 「당신께」(청하)를 펴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한 여인을 통해 우리시대에 진정한 사랑은 가능한가를 묻고 있는 작품이다.

## 박경리·이문구도 시집 펴내

이처럼 타장르 작가들의 영도침범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소설가들의 시집출간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대하소설의 새 경지를 연 「土地」의 작가 박경리가 펴낸 시집 「못떠나는 배」(지식산업

**박경리·이문구 등 원로·중견작가  
에서부터 장정일·김영승 등  
신예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복수장르 활동은 고답적인  
장르구분을 무색케 하면서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에 대한  
작가들의 새로운 대응방식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는 그동안의 틈틈이 써온 시를 모은 것으로 일상적 고통과 번뇌를 초극하고자 하는 강인한 정신의 높이가 담겨 있다. "건지기 어려울 때 시는 위안이었다"는 말에서 시집을 낸 이 작가의 정신세계의 일단을 엿볼 수 있을 듯하다.

질은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작가 이문구의 동시집 「개구장이 산복이」(창작과비평사)도 시선을 끄는 책. 「장한몽」 「관촌수필」 「우리 동네」와같은 소설과 달리 섬세하고 자상한 이 작가의 또다른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 "산너머 저쪽엔 / 별뿔이 많겠지 / 밤마다 서너개씩 / 떨어졌으니 / 산너머 저쪽엔 / 바다가 있겠지 / 여름내 은하수가 / 흘러갔으니" 처럼 해맑은 시선을 대할 수 있다. 산복이와 자숙이 남매를 기르면서 틈틈이 쓴 동시와 동요를 모았다고 한다.

이밖에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외수가 시집 「풀꽃 술잔 나미」(동문선)를 내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작가가자 유도대학교 수인 신상성이 젊은 시절 썼던 서정적 시를

모아 펴낸 「당신 눈을 들여다 보면」(경운)도 독자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아울러 작년도 「비명을 찾아서」라는 작품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작가 복거일도 최근 「五丈原의 가을」(문학고지성사)이라는 시집을 펴내 평단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시대에서는 대하기 힘든 고전적 사유와 감성이 교집된 시집.

## 전통적인 장르 분류법 무너져

시인이 소설을 쓰고 소설가가 시집을 내는 현상은 문학평론가 김현교수(서울대)의 지적대로 "장르를 뒤섞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한국문화계"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은 상당히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예를 보면 하등 이상할 것 없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 문학평론가 박덕규씨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라면서 "독자의 시선을 끌려는 출판사의 상업적 전략과 다양한 자기표현의 통로를 찾는 작가의 의도가 맞아떨어짐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라고 지적했고, 시인 하재봉씨는 "후기산업사회의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을 작품 속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시·소설·수필 식의 전통적 장르분류법은 이제 무의미해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소설·희곡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일씨는 자신은 작품을 쓰면서 구태여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체질처럼 되어 시를 소설로, 소설을 시로, 희곡을 시나리오로,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시나리오로 고쳐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여기다 문형렬, 김정숙, 이병천, 구광본 등 시·소설 데뷔절차를 모두 마친 신작작가들까지 합치면 앞으로 복수장르 문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평론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작업이 단순히 이색적인 것에 대한 호사취미의 수준을 벗어나 한국문학 속에 확고히 뿌리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 남진우 기자